

감관총채벌레

(신칭: *Ponticulothrips diospyrosi* Hagaet Okajima) (Thysanoptera: Phlaeothripidae)의 발생 보고

이규철, 박정규, 우건석¹, 추호렬, 강창헌
경상대학교 농과대학, ¹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경남 창원시의 감 과수원에서 2000년 6월 하순에 해충에 의한 피해 앞에서 총채벌레를 채집하여 분류한 결과, 우리 나라에서는 처음으로 관총채벌레科(Phlaeothripidae)의 감관총채벌레 (신칭) (*Ponticulothrips diospyrosi*)로 확인되었다. 이 종의 경남 도내에서의 분포현황, 피해증상, 간략한 형태 및 생태학적 특성을 소개하고자 한다. 경남의 단감 과수원에서의 분포범위를 조사한 결과 창원과 김해에서 각각 1개 과수원에서 피해와 충이 발견되었다. 감관총채벌레는 성충으로 월동한 후 감나무 신초의 어린 잎을 가해하며, 피해 잎은 가장자리에서부터 시작하여 황으로 주름이 저서 안쪽으로 말려들어 간다. 과일에 대한 피해는 직경 0.5mm 내외의 갈색 또는 자갈색의 반점으로 나타난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종에 의한 피해는 감에 한해서 나타나며, 이러한 피해증상은 감을 가해하는 해충 중에서 이 종에 의한 독특한 증상이기 때문에 이 종의 발생 유무를 확인하는 가장 좋은 지표가 된다.

감관총채벌레의 성충은 암수 모두 검은색 또는 암갈색이고 번데기는 황갈색이다. 尾管(tube)도 검은색이다. 복부는 길이가 폭보다 약 5/4배 길다. 복안의 후방에는 복안의 길이보다 약간 짧은 刺毛(postocular seta)가 발달해 있다. 측각은 8절로 구성되며, 제3절과 4절의 길이는 거의 같고, 5절부터 8절까지는 점차 길이가 짧아진다. 제3절부터 7절에 있는 感覺錐(sense cone)는 제6절에 있는 것이 가장 길고 다음으로 긴 것이 5절의 감각추이다. 부절의 앞쪽에는 이빨모양의 돌기가 있다. 복부는 총 11절로 구성되어 있다. 제1절의 小楯板은 종(鐘) 모양이지만 개체에 따라 약간 변형된다. 제10절은 보통 尾管(tube)이라고 하며, 제11절은 흔적만 남아있는데 腹端刺毛 (terminal seta)가 고리모양으로 나 있다. 미관의 길이는 머리의 길이보다 짧고 중앙부가 약간 잘록하다.

일본에서는 이 해충이 1975년 岡山縣에서 최초로 발견되어 현재에는 일본 전국에 분포하고 있다. 이 해충은 년 1세대 발생하고, 감나무, 소나무, 노송나무, 상수리나무 등의 조피간극에서 성충으로 월동한다. 일본의 岡山縣과 福岡縣에서는 4월하순부터 5월 상순에 걸쳐 성충이 월동장소로부터 감나무 신초의 어린 잎으로 이동하여 가해하기 시작하며, 제 1세대 성충은 6월 상순부터 나타나서 6월 중순부터는 감나무나 적송 등의 조피간극으로 이동하여 월동에 들어간다고 한다. 창원에서 피해잎을 최초로 발견한 6월 17일에는 한 잎에 수십 마리의 번데기와 성충이 서식하고 있었으나 7월 7일에 분포조사를 나갔을 때는, 아직 월동처로 이동하지 않은 성충이 한 잎에 2-3마리 정도 남아 있었다.